

작한 목자	천주교 싱가포르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fice Blk A3-7, 98 Hougang Avenue 8, S538791	주임신부: 박재우 사도 요한 사목회장: 최 수 사도 요한
------------------	---	------------------------------------

☎ 사제관: 6925-7873, 사무실: 6288-9771, 팩스: 6288-9551, <http://cafe.daum.net/kccsg>

주 일 미 사	주일: 오후 2시(대성전) 토요일 주일미사: 주일학교 방학기간 없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가정 주일로 토요일 미사가 없습니다.	주일 학교 (토)	유초등부 : 방학(5/24~8/21), 개학일 8/22 중고등부 : 방학(5/24~8/21), 개학일 8/22
		예비신자 교리	주일 12시 30분
평 일 미 사	시간: 화/오후 7시 30분, 수~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소성당	고 해 성 사	평일: 미사 전 후 고해실(A2-8) 주일: 미사 30분 전 성전 고해소.

연중 제12주일

오늘은 연중 제12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하느님 말씀을 맡겨 전하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우리가 결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합시다.

6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스포츠의 가치>

스포츠가 문화 간, 국가 간 평화와 만남과 대화의 도구가 되고, 존중과 연대와 인격 성숙과 같은 가치들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미사 시작 전, 예수성심성월 기도 바칩니다. 예수 성심은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인간적 신적 사랑을 드러냅니다. 신자들은 예수 성심을 공경하고 묵상함으로써 기도와 희생, 보속으로 그 사랑에 응답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일학교가 두달 동안 방학합니다. 방학기간 동안 토요일 미사는 없습니다.

6월 기쁨의 샘 꾸리아 윌레회의(제347차)

6월 21일(주일) 미사 후 3시 15분, 장소는 소성당입니다.

2026년 청년부 캠프 ‘슬기로운 신앙생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여는 캠프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청년부 회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날짜 : 8월 29일(토) ~ 30일(일) 1박2일
- * 참가 인원 : 선착순 20명
- * 회비 : 직장인 \$80, 학생 \$50
- * 문의 : 이규리 글라라 (카톡아이디 : kyurilee04)

독서팀 모집 안내

전례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봉독할 독서자를 모집합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봉사하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문의 : 길기은 크리스티나 (☎ 9012-0578)

빈첸시오회 후원을 기다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움 주신 후원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도움을 청하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도와줄 힘만 있으면 망설이지 말아라. (잠언 3:27)

* 문의 : 빈첸시오 회장 이영학 시몬(9619-6683)

* 후원 계좌 : PARK JAEWOO OCBC 543289292001

인터넷 교리 안내

예비자 교리 <http://school.catholic.or.kr/cte/roompass.asp>

견진 교리 <https://school.catholic.or.kr/3217e>

※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사제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제11주일(6월14일) 주일헌금 \$1,138.50.

감사헌금

교무금 내신 분 (6월 13일 ~ 6월 19일)

권명희 마리아 6월, 김수성 요한 6월, 김원기 미카엘 4-6월, 김형태 니콜라오 5월, 남병훈 안드레아 6월, 박성운 가브리엘 5,6월, 배성찬 라파엘 6월, 신승철 스테파노 6월, 유정선 에스더 6월, 원영훈 야고보 5월, 이해숙 미카엘라 6월, 최수 사도요한 5-7월, 현경숙 유스티나 5,6월, 홍석묵 루치오 5-12월.

■ 14세대 \$2,800.

◆ **교무금 감사헌금 입금 계좌: DBS 113-008886-3 PARK JAEWOO**

※ 온라인 송금시 **입금자 이름, 세레명을 꼭 같이 적어주세요!**

사무실과 소성당 이용 시간

평일 : 화요일 오후 6시 ~ 9시,

수, 목, 금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점심시간 : 12시~1시).

토요일 : 오후 1시 ~ 8시, 주일 : 12시 ~ 5시

※주소 변경이나 귀국할 때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참례자 수(지난 주)

6/14(일)	평 일			
2:00	16(화)	17(수)	18(목)	19(목)
148	14	36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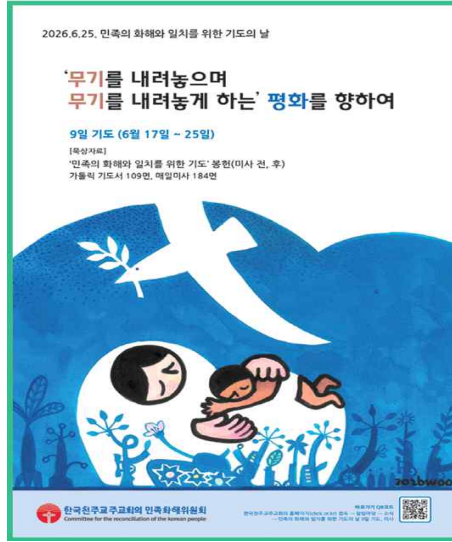
* **봉헌 가족** : 심대용 안젤로 · 한옥길 안젤라 메리치

저 자 씨

◆제1635호◆

Korean Catholic Community, 1259 Upper Serangoon Road, Singapore 534795 Tel: 6288-9771

2026년 6월 21일(가해) 연중 제12주일



2026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포스터

입 당 송

주님은 당신 백성의 힘이시며, 당신 메시아에게는 구원의 요새이시다. 주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재산에 강복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이끌어 주소서.

제 1 독 서

예레 20,10-13 <주님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화 답 송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난한 이들과,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떨치지 않으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아,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

제 2 독 서

로마 5,12-15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복 음 환 호 송

알 렐 루 야 알 - 렐 루 야 - 알 렐 - 루 - 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복 음

마태 10,26-33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 성 체 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입당송: 16 봉헌: 512 · 513 성체: 165 · 175 파견: 402

‘두려워하지 마라’



박명수 가브리엘 신부
봉평 성 루카 본당 주임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예레 20,11).

오늘의 1독서와 복음은 파견한 분께서 파견된 이들을(예레미야와 사도들) 격려하시는 대목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그 어떤 박해와 고난을 겪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파견하신 분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 절대적인 의탁을 잊지 말라는 당부 말씀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움’ 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너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느님을 물음에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창세 3,10)하는 대목에서 처음 사용됩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두려움의 바탕에는 하느님을 ‘처벌하시는 분’ 으로 여긴 마음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곧, 에덴이라고 하는 터

전을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 모든 것을 맡겨 주실 정도로 자비롭고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느님과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림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벌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겨난 ‘원죄’ 는 단지 ‘금기사항을 위반하여 생겨난 죄’ 라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하느님을 왜곡하여 생겨난 잘못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배푸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빼앗는 하느님, 자유보다는 속박하는 하느님, 용서보다는 처벌하는 하느님으로 왜곡한 것, 그것이 원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고 하심은, 당신께 믿음과 신뢰를 두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곧, ‘머리카락까지도 낱알이다 세어두셨을’ 만큼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보살피고 돌보시는 하느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지만” (로마 5,12 참조), 이천 년 전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 (로마 5,15)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어 파견된 이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의 아픔에 응답하며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9일 기도

|기간| 6.17(수)~25(목)
|방법| 미사 전·후 기도문 함께 봉헌
|기도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지향| 민족의 화해와 일치



- 6.17(수): 우리 사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 6.18(목): 상호 존중을 위하여
- 6.19(금): 평화의 임무를 위하여
- 6.20(토): 이산가족과 북한민을 위하여
- 6.21(주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 6.22(월):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 6.23(화): 무기를 내려놓는 평화를 위하여
- 6.24(수):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 6.25(목): 평화를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

한반도에서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 를 만들어 갑시다.



▶담화 원문 보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6년은 한반도가 분단된 지 81년,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6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공동의 집에 살고 있는 남과 북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지난해 8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에서는 분단 80년을 맞아 특별 사목 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서한에서 남북은 그동안 불신과 미움의 마음을 키우며 무기와 군사력을 방패 삼아 상대를 굴복시키려 해 왔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얻는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고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는 평화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뒤, 한반도에서 긴장을 낮추고 대화를 나누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남북 관계는 아직도 경색되어 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도 계속된 대화 단절과 불신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의 전쟁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갈등은 만남과 대화, 그리고 신뢰 회복으로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중동 지역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도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국제 현실과 더불어 안타깝지만 한반도에서도 서로를 향한 불신과 적대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은 남북의 민족 공동체성보다 서로 다른 두 국가성을 강조하며 남북이 서로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남북은 분명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국가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방향이 대화를 가로막고 적대성을 더욱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의 당국자들이 공존, 공영의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지혜롭게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남북이 각자의 마음에서 적대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며, 상대의 처지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동안 가졌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문제부터 마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이 전쟁의 상처를 보듬는 일부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가 그 존재조차 잘 모르지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는 북한 군인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6·25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수습된 북한군의 유해를 묻어 조성한 곳입니다. 1996년 우리 정부가 국군 유해를 발굴하다가 함께 수습한 북한 군인들의 유해를 안장하며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돌아가야 할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적대감을 낮추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 당국자가 북한군의 유해 송환을 이념과 정치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로 나설 수 있기를 빕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관계 맺기의 시작이고, 미움의 마음을 협력의 마음으로 바꾸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미움을 화해의 길로 돌리는 데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지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길이 쉽지 않다고 해서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맡겨 주신 사명 곧 평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에는 어렵고 힘든 문제보다 단순하지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과 적대감이 더욱 낮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도와 노력은 남북 사이에 ‘무기를 내려놓고,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 를 이루어 줄 것입니다.

2026년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